

# 스티로폴 재활용률 꾸준히 증가

## 올해 상반기 46.6%인 11,291톤 재활용

지난 96년 3월부터 스티로폴이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되고 협회의 지속적인 계몽 및 홍보 활동으로 스티로폴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40%대의 재활용률을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46.6%의 재활용률을 기록, 지난해 41.9%의 재활용률보다 4.7% 증가했다.

올 상반기 페스티로폴의 발생량은 2만4천252톤으로 이중 46.6%인 1만1천291톤이 재활용되었으며 매립 8천248톤(34.0%), 소각 3천417톤(14.1%), 보관·기타 1천296톤(5.3%)이었다. 재활용된 페스티로폴은 재생수지 8천941톤(79.2%), 경량폴 1천450톤(12.8%), 접착제 900톤 (8.0%) 등으로 재생되었으며(표1), 잉고트나 펠릿 등 재생수지를 중국, 일본 등으로 1천200톤을 수출하여 45만 달러의 외화획득도 했다.

상반기 동안 페스티로폴의 대량 발생처는 농수산물장(6천771톤), 백화점/유통(4천386톤), 가전대리점(3천308톤), 가정/일반업소(3천289톤), 전기/전자업체(2천535톤), 일반기업(2천86톤) 순이었으며 재활용률은 가전대리점이 64.5%(2천134톤)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유

통이 38.7%(1천699톤)으로 가장 낮았다.(표2)

참고로 상반기 동안 용도별 스티로폴 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전완충재 1만6천970톤, 일반포장재 3천793톤, 농수산물상자 4천757톤, 부자 1천616톤, 기타 1천664톤으로 총 3만3천49톤이 사용됐다.

협회는 상반기 동안 초중고 학생, 주부, 시민단체, 환경네트즌을 대상으로 꾸준히 스티로폴 재활용 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홈페이지를 개설 오픈하여 사이버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스티로폴 우수 지자체 포상, 폐부자 수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스티로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9일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청에서 그동안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었던 스티로폴 식품포장용기(PSP)의 분리, 수거, 재활용 시범 사업을 대 한주부클럽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됨은 물론 이번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받음에 따라 스티로폴 식품포장용기 재활용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표1. 페스티로폴 재활용 용도별 현황('99년 상반기)

구분	재생수지	경량폴	접착제	계
재활용량(톤)	8,941	1,450	900	11,291
백분율(%)	79.2%	12.8%	8.0%	100%

표2. 페스티로폴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99년 상반기)

페스티로폴 발생원	전기 전자업체	농수산물 시장	백화점/유통	가전 대리점	가정/일반업소	일반기업	기타	계
발생량(톤)	2,535	6,771	4,386	3,308	3,289	2,086	1,877	24,252
재활용량(톤)	1,425	2,961	1,699	2,134	1,796	958	318	11,291
재활용률(%)	56.2%	43.7%	38.7%	64.5%	54.6%	45.9%	16.9%	46.6%